

여성 SF가 사유하는 돌봄의 익숙한 미래

안서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연구부교수

목차

- 1 서론: 돌봄의 사고 실험
- 2 ‘엄마’의 스페이스 오딧세이: 양육의 익숙한 미래
- 3 고장 날 수밖에 없는 로봇: 간병의 익숙한 미래
- 4 결론: 망각에 대한 저항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를 전후하여 페미니즘 SF 창작이 활성화된 문학 장에서 팬데믹 이후 돌봄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면서 돌봄의 미래를 상상하는 SF 소설이 여러 편 발표되었다. 이는 돌봄의 담론과 언어를 재구성하려 하는 작가들의 노력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소설들은 돌봄의 문제를 기술 의존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손쉬운 결말을 거부하고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은 익숙한 현재가 그대로 미래로서 도래하는 시대착오의 상상력을 통해 돌봄의 현실을 전면화하는 서사적 전략을 보여준다. 사회적 돌봄으로의 인식의 전환에 바탕을 둔 성찰적 개입이 없는 한 돌봄의 부정의가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비관적 상상 자체를 대안의 원천으로 삼는 역설적 대안을 제시한다. 또 이 소설들은 돌봄의 문제가 ‘돌봄 로봇’이나 ‘돌봄 식민지’ 즉 기계화나 외주화에 의한 돌봄 노동의 대체나 전가에 의해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으며 상호 돌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드러내는 사고 실험이자, 돌봄의 기계화나 외주화 상상에 흔히 개재되어 있는 돌봄에 대한 기능주의와 분리주의적 사고를 거부하고 돌봄이 공동체 내에서 통합적이며 관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말하는 사변적 우화이다. 이러한 여성 SF의 상상력은 기술에 의해 확장된 자아의 모험과 정복된 미래의 시간을 보여주는 전통적 SF와 달리 조연이었던 여성 인물의 제한된 자아의 고투와 현재의 젠더·돌봄 부정의의 지속으로서의 미래를 그림으로써 동시대의 돌봄 현실은 물론 기존 SF에 대한 대안적인 사유와 맞닿아 있다.

국문핵심어: 돌봄, 돌봄 노동, SF, 페미니즘 SF, 시대착오

1 서론: 돌봄의 사고 실험

어슐러 K. 르 귄은 SF를 가리켜 미래를 예언하기보다 현재를 기술하기 위한 사고 실험이라고 하였다.¹ 다시 말해 SF를 쓴다는 것은 인류 사회의 미래를 상상하는

1 어슐러 K. 르 귄, 최용준 역, 「1976년 서문」, 『어둠의 왼손』, 시공사, 2014, 19쪽.

일보다는 현재의 잠재적인 양태를 재현하는 일에 가깝다. 조애나 러스 역시 작가 사무엘 딜레이니의 정의를 빌려 이와 유사한 정의를 내렸다. 그에 따르면 SF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다루는 서사 장르다.² SF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기존의 협소한 개연성의 틀을 넘어 현실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탐사한다.

위의 두 정의를 참조하건대 SF는 잠재적이고 위반적인 것을 포함하는 확장된 시간성 속에서 현실을 조망하는 서사 장르다.³ 따라서 SF는 통념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미래의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와 그 해결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장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사고의 틀, 예컨대 문제의 설정과 해결이라는 근대적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그 바깥에서 현재와 미래를 상상하는 전복적인 사고 실험인 것이다. 이것은 도나 해러웨이가 말한 것과 같은 사변적 우화로서의 SF, 어떠한 문제들을 다른 문제들과 함께 생각하는 싹뜨기와도 같은 관계적 실천의 사유로서의 SF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⁴

SF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모든 종류의 대안적 상상력과 만나게 되고, 페미니즘과도 물론 접점을 갖는다. 조애나 러스에 따르면 1970년대 페미니즘 유토피아 소설이 젠더의 역할과 권력을 뒤집어 보는 사고 실험을 펼쳤듯 페미니즘 문학과 SF는 역사적으로 친연성이 깊다.⁵ 또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한국문학에서 여성 작가들의 SF가 부상하면서 이와 같은 젠더적 사고 실험

-
- 2 딜레이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정은 단어와 대상을 잇는 의미의 끈을 당기는 긴장이다. 보고문학에서는 전반적인 직설법의 긴장이 전체 단어들의 연쇄에 영향을 미친다.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된다. 자연주의 소설로 분류되는 단어들의 연쇄에서 가정의 단계는 다음 문장으로 정의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 판타지는 자연주의 소설의 가정을 가져다가 반대로 뒤집는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 그리고 [이 가정의 단계는] 즉각 일련의 모든 단어들에 영향을 미친다…… SF에서 가정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바뀐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조애나 러스, 나현영 역,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포도밭, 2020, 53-54쪽.
 - 3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오히려 기존의 개연성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SF가 오히려 기존 소설보다 더 넓은 개념이 된다. 이러한 개념 이해 방식은 통념상의 소설과 SF 소설의 포함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 4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27-29쪽.
 - 5 조애나 러스, 나현영 역,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포도밭, 2020 참조.

이 이루어진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⁶

이에 따라 문학 연구에서도 여성 SF 또는 페미니즘 SF라는 개념이 소개되고, 그 창작 양상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서승희는 여성 SF라는 범주를 제안하면서, 기존 보편 남성 주체와 다른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재편을 보여주는 대안적 서사에 주목하였다.⁷ 강은교와 김은주는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인 조우에 주목하면서 젠더의 문제를 다루는 SF의 등장은 2010년대 후반 페미니즘 대중화의 반영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페미니즘 SF는 페미니스트 독자층의 등장과 함께 대안적 세계를 그리는 정치적 역량을 획득하고 있다고 보았다.⁸ 이지용 역시 2015년을 기점으로 하여 페미니즘 담론이 인류세 및 기후위기, 포스트휴먼 논의와 함께 SF 장르와 상호연관성을 갖고 주제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⁹

본고는 여성 SF 또는 페미니즘 SF에 주목하면서도 젠더적 질서의 전복이라는 전위적 사고 실험의 차원보다는 더 구체적인 젠더적 의제를 제기하는 소설들, 그중에서도 돌봄¹⁰의 문제를 사유하는 소설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설들은 돌봄 노동의 기계화와 외주화의 상상력을 시험하고 있는데, 이는 돌봄 노동의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돌봄 노동이 특정 젠더에게 편중되거나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떠넘겨지면서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돌봄 노동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현실의 양상이 다시 돌봄 노동의 외주화로 이어지면서 가족의 돌봄 노동의 무게가 그대로 임금 노동자들, 대부분 여성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젠더화와 외주화의 양상이 오늘날 돌봄 노동의 부정의(不正義)의 핵심이다. 돌봄의 기계화에 대한 상상은 로봇 등의 도입을 통해 돌봄 노동의

6 인아영, 「젠더로 SF하기」, 『자음과모음』 제43호, 2019년 겨울, 47-48쪽.

7 서승희, 「포스트휴먼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한국 여성 사이언스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7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참조.

8 강은교·김은주,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두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9-42; 55-59쪽.

9 이지용, 「한국 SF의 장르적 개별성과 현대적 주제의식」, 『한국연구』 제8호, 한국연구원, 2021, 51-56쪽.

10 돌봄은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더 케어 컬렉티브, 정소영 역,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니케북스, 2021, 17쪽.

부담이 감소하리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돌봄을 다른 개체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외주화의 상상이 변형된 것일 수도 있다.

SF가 돌봄의 문제를 다루는 일의 효용에 대해 알려주는 작품으로 엘리자베스 문의 『잔류 인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오펜리아’는 인류가 괴생명체를 발견하고 그간 개척했던 행성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함께 철수하지 않고 혼자 남기를 택한다. 그녀가 잔류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자신이 속해 있던 가족과 이웃 공동체에서 경험한 그녀와 그녀의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절하다. 그녀의 가족이나 이웃들은 노인 여성인 그녀의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 그녀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자신의 언어를 억압한다. 스스로를 억압하는 목소리만이 끊임없이 울리던 그녀의 내면에서, 잔류 이후로는 그녀 자신의 본연의 목소리가 울려오기 시작한다.

좋은 동지수호자는, 파란 망토는 설명했다. 새끼들이 모든 것에 관해 최대한 많이 배우기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태세를 갖추기를, 열광하기를—바란다. 나쁜 동지수호자는 새끼들이 계속 같은 것에 만족하게 만들어 그들이 안전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 인간들은, 파란 망토는 오펜리아의 얼굴을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들은 동지체를 파괴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막으려 한다. 그들은 나쁜 동지수호자다. 너와 다르다. 또한 그들은 너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다. 파란 망토는 전자와 후자가 똑같이 나쁘다는 느낌이 들게 말했다.

(…)

우리는 너를 신뢰한다. 파란 망토가 계속 말했다. 너는 동지수호자다.¹¹

괴생명체를 만나고 그들에게서 신뢰를 얻으면서 그녀는 그 공동체에서 ‘동지수호자’라는 이름으로 돌봄 노동을 맡게 된다. 그녀의 돌봄은 공동체를 건사하는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 받는다. 그녀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도자와 그 내용을 다른 공동체에 전하

11 엘리자베스 문, 강선재 역, 『잔류 인구』, 푸른숲, 2021, 368-369쪽.

는 사절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와 언어를 되 찾게 된다.

『잔류 인구』는 돌봄 노동에 대한 하나의 사고 실험이다. 이 이야기는 현실에 잠재하는 돌봄가치 절하의 디스토피아, 그리고 상호 존중과 돌봄의 유토피아라는 상이한 계기들을 시험한다. 주인공이 자발적으로 고립을 택할 정도의 척박한 돌봄 현실과,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종을 초월하는 돌봄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이상적인 돌봄 공동체를 차례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돌봄의 정치를 재구성하는 일이 결국 돌봄 노동의 가치와 그 제공자의 위상을 조정하고 그것을 말하는 언어를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해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 여성 SF 가운데 돌봄의 주제를 다룬 소설들은 이러한 대안적 상상력을 보여주기보다는 더 비관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안의 ‘실패’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SF가 그러하다고 자주 믿어지는바 미래의 문제와 그 해결을 제시한다는 오해를 배반하고 오히려 매끄러운 해결이 불가능한 미래의 곤경을 직시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취해지는 서사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돌봄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다른 모든 것이 크게 변화한 미래의 세계에서 오로지 돌봄의 현실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시간착오의 상상력을 통하여 돌봄의 ‘익숙한 미래’를 그림으로써 돌봄의 부정의가 지속된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한국의 척박한 돌봄 현실이 그만큼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돌봄 부정의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관적 서사 전략이 요청되는 것이다.¹² 또 기술이 모든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특이점의 도래가 임박했다는 데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기술 만능의 상상력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 소설들은 돌봄의 문제가 기계화나 외주화라는 방식을 통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으

12 이러한 돌봄의 재현의 급증은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 위기와 지속 불가능성의 인식에서 일정 부분 기인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담론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미라·배은경, 「가족과 젠더를 넘어 돌봄의 관계를 상상하기-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495-496쪽. 김양숙, 「팬데믹 이후 사회에 대한 (여성)문학의 응답: 젠더, 노동, 네트워크」, 『비교한국학』 제29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1도 참고할 수 있다.

리라는 낙관주의를 거부한다. 가정용 로봇들이 돌봄 노동을 적적 수행한다는 장밋빛 상상을 지워버린다. 비판은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그 자체이자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한국 여성 SF 가운데 돌봄의 미래를 말하는 소설 여섯 편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여섯 편 외에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소설들은 주석에서 함께 거론하거나 비교하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돌봄의 기계화와 외주화가 본격화된 사회에 대한 사고 실험,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돌봄의 ‘익숙한 미래’의 양상을 살피고, 이러한 상상들이 돌봄에 관한 논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논하고자 하였다.

2 ‘엄마’의 스페이스 오딧세이: 양육의 익숙한 미래

돌봄경제학의 창시자 낸시 폴브레는 『보이지 않는 가슴』에서 “돌봄은 극도로 노동집약적이다. 일대일의 접촉과 개인별 맞춤 지식이 필요하다. 표준화되거나 객관화될 수도 없다. 훌륭한 돌봄 로봇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땀과 눈물을 실리콘으로 완벽하게 대체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돌봄 로봇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용어 자체가 모순이다.”¹³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체 불가능한 돌봄 노동의 특수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육아를 로봇이나 외계 생명체 등에 의해 대체한다는 생각은 여러 SF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테드 창이 「데이시의 기계식 자동 보모」에서 기계 보모는 강도 높은 양육 노동에 지친 인간 보모가 저지를 수 있는 아동 학대나 그가 가질 수 있는 감정적인 양육 태도와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인간 보모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 소설에서 기계 보모의 발명가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다. “인간 보모의 유일한 대체품”이 될 수 있는 기계 보모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아기가 정확한 수유와 수면 시간을 지킬 수 있게 교육합니다. (…)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며, 따로 머물 방도 필요치 않고,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13 낸시 폴브레, 윤자영 역, 『보이지 않는 가슴』, 2001, 87쪽.

악영향에 노출시키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¹⁴ 여기까지만 보면 그가 발명한 기계식 자동 보모는 이상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 보모의 오작동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고, 그 이후 재실험을 했을 때도 기계 보모에게서 자라난 아이가 기계에 대한 애착 형성 때문에 다른 아동들과는 다른 면을 보인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기계식 자동 보모는 결국 박물관으로 보내진다. 테드 창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사고 실험을 통해 기계 보모의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준 셈이다.

다른 SF들에서도 육아 로봇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¹⁵ 넷플릭스 영화 <나의 마더>나 애니메이션 <에텐>에도 육아 로봇이 나온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한다. 극중 다른 문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적어도 로봇에 의한 돌봄이라는 데는 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설정은 돌봄 노동이 기계 노동력에 의해 매끄럽게 대체될 수도 있으며 돌봄을 둘러싼 현재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낙관이 가능할까?

이경의 「한밤중 거실 한복판에 알렉산더 스카스가드가 나타난 건에 대하여」는 이러한 양육의 기계화의 상상을 다룬다. 대화형 AI를 장착한 젓병소독기를 이용하던 주인공 ‘미주’는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함께 유명 배우의 모습으로 활성화된 AI를 만나 짧은 시간 동안 우정을 나누며 돌봄 노동의 고립감을 위로받는다. 역시 돌봄노동자에게 무엇보다 자신과 세계를 연결할 언어가 필요함을 간파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맞춤형 대화를 통한 돌봄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기계화된 상호 돌봄을 상상한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 그러나 독자도 진작에 눈치 챌 수 있듯이 이것은 작가가 건네는 돌봄 노동의 기계화에 대한 거대한 농담이기도 하다.

14 테드 창, 김상훈 역, 「테이시의 기계식 자동 보모」, 『숨』, 엘리, 2019, 256쪽.

15 여기서 로봇은 여성화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 가사, 반려 등 사회적으로 여성이 하는 일이라 여겨지는 일을 대체하는 로봇, 즉 인간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회적 로봇은 여성의 외양으로 디자인된다. 돌봄이 여성의 일로 여겨지면 이러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성 고정 관념을 적용하여 돌봄 로봇을 여성으로 고안하는 편이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매끄럽게 하므로, 부득이한 선택이 된다. 임소연,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민음사, 2022, 115-116, 117, 119쪽.

(가) 고립감. 그렇습니다. 베이비케어사용자의 대다수는… 외로우셨어요. 단순히 외롭다는 말로는 부족하군요. 아기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아기는, 특히 사용자가 아기를 처음 돌보는 경우라면 더더욱, 철두철미하고 완전한 주의집중을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흔히 ‘손이 간다’라고 일컫는 요구 수준은 아기가 성장할수록 다양해지고 뻣뻣해져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보호자는 그때까지의 생활로부터 갑자기 뚝 잘려 나와 낯선 세계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기와 나만 존재하며, 내가 아기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책임져야 하는 독방의 시간이 닥치죠.¹⁶

(나) 알렉산더가 있어서 뭐가 대단히 나아졌는가? 미주와 남편은 인공지능이 꺼져 있던 시기에도 젖병 소독을 잘했다. 지금도 알렉산더는 젖병 소독만 해주지, 다 쓴 젖병을 닦거나 분유를 타는 것 같은 앞뒤의 번거로운 노동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 알렉산더가 사라진들 매번 버튼 하나 누르는 정도의 사소한 귀찮음이 돌아올 뿐이다.¹⁷

위의 인용문들은 돌봄 노동이 갖는 ‘그림자 노동’으로서의 속성을 적확하게 지적한다. (가)에서처럼 돌봄 노동을 할수록 주체는 투명해진 자아¹⁸와 독방의 시간이라는 본질적 측면을 경험하게 된다. 그 노동은 의존하는 대상을 중심에 둔다. 이들은 다른 이들과의 소통으로부터도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또 (나)에서처럼 ‘젖병 소독’ 앞뒤의 사소한 노동들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인지되지 않은 노동이

16 이경, 「한밤중 거실 한복판에 알렉산더 스카스가드가 나타난 건에 대하여」, 이신주 외 4인, 『문운성 SF문학상 중단편 수상작품집』, 아작, 2022, 112쪽.

17 위의 책, 131쪽.

18 ‘투명 자아’는 “자신의 필요를 알고 있지만 타인의 필요를 우선으로 간주하는 자아”로, 의존 노동은 이러한 자아를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만든다. 에바 페터 키티에이, 김희강·나성원 역,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6, 114-115쪽. 에바 키티에이는 모든 인간은 상호 돌봄에 의존하는 존재라고 보고 있으며, 돌봄 노동을 ‘의존노동’이라고 부른다.

다. 분유 타기나 젖병 씻기 등은 낱알이 비용이나 생산으로 계산된 적이 없다. 이 인지되지 않은 노동의 조각들은 기계화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만일 기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그림자 노동이 모두 공적으로 산입되는 ‘양지의 노동’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각각의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하는 생활의 편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¹⁹ 그러니 AI가 상용화되고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는 미래라 해도 옷방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 고단한 돌봄의 풍경이 크게 바뀌 리 없는 것이다.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유와 합의의 진전 없이는 돌봄 또는 ‘돌봄의 돌봄’의 기계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돌봄의 현실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이다.

〈스페이스 오딧세이〉는 SF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자, 전형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보편자를 대변하는 인간 영웅이 우주 모험을 통해 자아를 찾고 외부를 개척하여, 도로 지구로 귀환하는 이야기였다. 오정연의 「미지의 우주」는 이 스페이스 오딧세이의 서사 구조를 뒤틀어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귀환자 ‘엄마’를 다룬 이야기로 바꾸어 썼다.²⁰ 자아와 세계의 확장이 아니라 제한을,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현실로의 회귀를 이야기하는 전복적 서사다. 화성 이주 2세대로서 콘텐츠 기업에서 팀장에서 일하는 주인공 ‘미지’는 지구 연수 제안을 받고 단기 이주를 준비하던 중 딸 ‘우주’의 보육 신청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화성으로의 이주가 가능하게 된 지도 꽤 되었다

19 이것은 세탁기의 발명이 여성의 현실을 개선했다는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것이 공적 노동으로 계산되지 않는 한, 그것은 가사노동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돈을 주고 기계를 살 자유, 그리고 자신에게 전가된 가사노동, 그것도 그 분절된 일부를 기계에 맡길 자유일 뿐이다.

20 오정연은 작가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이야기가 시작된 좌표를 하나만 꼽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하다. 「미지의 우주」의 경우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빛나는 좌표가 레이 브래드버리의 「황야」다. 「황야」는 앞서간 남편과 합류하기 위해 화성행 로켓에 몸을 신기 직전 주인공의 마지막 며칠이 담긴 단편이다. 가늠할 수 없이 긴 여정을 앞둔 여자들의 긴장과 설렘이 낭만으로 묘사된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먼저 가고 여자가 따라가는” 개척의 흐름을 두고 여성 화자는 이렇게 말하며 끝을 맺는다. “그랬겠지. 정말 비숫했을 거야. 항상 그래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모습이겠지.” 김하울 외 6인, 『우리가 먼저 가볼게요』, 에디토리얼, 2019, 244쪽.

는 설정이고, 지구와 화성을 연결하는 통신망도 구축되어 있으며, 우주선 안에는 귀환자를 위한 중력 적응 프로그램까지도 갖추어져 있다는 배경 설정이다. 그럼에도 보육에 관한 한 현실은 21세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아동 본인은 물론 양쪽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만 입소 대기를 완료할 수 있었다. 강우주 밑에 ‘보호자 1’인 강미지의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했지만, ‘보호자 2’의 정보를 빈칸으로 남겨두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었다. 친모와 친부가 아닌 보호자 1, 2에 그쳤다는 사실을 기특하게 여겨야 할지, 성별을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쳤으면서 한 부모는 용납할 수 없다는 고집을 딱하게 바라봐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제아무리 대접근기라도 빛이 5분 동안 여행해야 닿을 수 있는 만큼 먼 행성, 지구가 한없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화면 우측 하단에 ‘특수가정’이라는 작디작은 선택 버튼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다시 10분을 기다려 한 부모 가정, 동성 가정, 조손 가정 등이 ‘특수’하다는 것을 알아냈다.²¹

‘미지’는 지구의 보육 신청 시스템에서 애를 먹는데, 그것은 이 시대에도 ‘싱글맘’과 아이의 2인 가정이 ‘정상 가정’으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성에서도 남성 양육자가 있어야만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도 화성의 한국 엄마들부터 서울에서 살게 될 아파트의 거주자 커뮤니티까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 계속 생긴다. 여전히 개인의 정보력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다른 시대가 오더라도 돌봄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다면, 그리고 돌봄의 공공성 확보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기술의 발전만으로 돌봄 노동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미래에도 현재가 지속되는 시간착오의 서사를 통해 보여준다.

21 오정연, 「미지의 우주」, 『단어가 내려온다』, 허블, 2021, 130-131쪽.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낮 시간 놀이가 마무리되는 늦은 오후부터, 미지와 육아 로봇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다. 육아 로봇은 아이의 취침시간까지, 씻기고 먹이고 우주의 학습을 고려한 놀이를 함께 하고, 또다시 먹이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우주를 침대로 이끌었다. 그동안 미지는 저녁을 만들어 먹고 취침 준비를 마쳤다. 아무리 육아 로봇이 빈틈을 채워준다 해도 모친과 육아를 함께 할 때와는 다른 차원의 피로가 늘 흘러넘쳤다. 아이가 좀 자라자 몸이 편해진 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기세로 정신적인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

어떤 날은 교착 상태에 빠진 지 오래인 전선을 지키는 지휘관이 된 것 같았다. 그날의 전투가 끝나면 하루 치 감정의 찌꺼기들이 참호를 훑는다. 헤리처럼 아이가 둘이라면 낮 동안의 전투는 훨씬 치열했으리라. 서로 안부를 나누고 모범 답안에 근접한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정리될 리 없다.²²

이처럼 양육의 어려움은 육아 로봇의 도입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돌봄 노동이 육체 노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로를 견디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돌봄의 상황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미묘한 적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서 오는 부수적인 감정노동도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미지’의 스페이스 오딧세이는 귀환자가 겪게 되는 ‘기지’의 세계와의 불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양육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을 조정하게 만든다.

앞의 두 소설이 돌봄의 기계화 이후의 미래가 지금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면, 박문영의 「무주지」²³는 돌봄이 외주화를 통해 해결될 수

22 위의 책, 143-144쪽.

23 오정연의 「도메스틱 헬퍼」 역시 시간이주자들에게 의한 돌봄 노동의 외주화라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이러한 외주화의 문제는 돌봄 노동 분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돌보는 계급(Serving Class)’와 그러한 돌봄을 받는 ‘돌봄 받는 계급(Served Class)’의 분화, 그리고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이 이주자를 고용하여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주 노동에 이은 연쇄적인 돌봄 공백이 생겨나는 페미니스트 사회학자 엘리 러셀 흑실드가 말한 ‘글로벌 돌봄 사

있는지를 극단적인 사고 실험을 통해 질문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비관적인 대답을 내놓는다. 이 소설은 육아가 전담 클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주지’라는 가상 사회를 통해 돌봄 외주화의 사고 실험을 펼친다. 이곳에서는 이 클론들이 부부처럼 짝을 이루어 배정된 아이를 맡아 키운다. 이들은 4년이 지난 후에는 자신이 돌보는 아이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애착 형성으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돌봄의 문제를 기계나 다른 노동력에 전담시킴으로써 해결하고자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애착 형성의 문제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래서 「무주지」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애착에 대한 관념 전부를 재구성한다. 이곳에서는 모든 종류의 애착 관계가 금지되고 모든 구성원들과 얽은 관계를 나누는 ‘오픈 릴레이션십’이 강제된다.

하지만 그것이 기계 노동이든 클론이나 외계 생명체에 의한 외주화 노동이든 육아 노동을 다른 존재에게 전가하는 구조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애착 형성의 딜레마가 있고, 그것을 애착 형성의 차단으로 해결하려 하면 이번에는 애착 관계를 차단 당한 채로 돌봄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이들의 소외가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돌봄의 외주화가 결국 돌봄의 식민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무주지는 그저 끔찍한 곳이었다. 여기 혼자 남았다는 것이, 자신이 너무 어리다는 사실이 그걸 또렷이 알려주었다. (...)

“울지 마, 괜찮아.”

연음은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다. 시야가 흐릿했다. 꿈속인 걸까. 그는 눈두덩이를 오래 비볐다. 땅을 뚫고 나온 넝쿨 위에서 누군가 말을 하고 있었다. 알몸의 기정이었다. 깃털 같은 잎사귀들이 그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세 개의 잎은 그들 오른쪽 목덜미에 새겨진 인장과 같은 형태였다.

슬(Global Care Chains)’으로 이어진다. 김현미, 「국경을 넘는 여자들」, 조한진희 외 10인, 『돌봄이 돌보는 세계』, 동아시아, 2022, 297-304쪽. 이에 대해서는 문현아, 「글로벌 사회 변화 속 젠더화된 돌봄노동의 이해」, 정진주 외 9인,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하여』, 한울, 2012도 참고할 수 있다.

얇고 긴 줄기 하나가 연음과 기정의 입속으로 무언가를 떠 넣어주었다. 유백색 물방울 모양의 작은 열매였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건조한 입안이 금세 촉촉해졌다. 즙에서 달고 고소한 맛이 났다. 잎들이 그들의 등판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잠시 후 둘은 동시에 트림을 내뿜었다. 밧줄처럼 얽힌 줄기가 그들의 겨드랑이를 휘감아 올렸다. 발치부터 잔잔한 진동이 느껴졌다. 잠이 오기 시작했다. 연음과 기정은 줄기들이 몸을 파고들도록 목에 힘을 뺐다. 사지가 금세 늘어졌다.²⁴

위 대목은 「무주지」의 결말을 보여준다. 육아 담당 클론인 ‘기정’과 ‘연음’은 4년 이 지난 후에도 자신들이 돌보던 아이와 계속 같이 살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어려운 우주 탐사 임무를 제안 받아 그것을 수행하던 중 그 임무가 함정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외계 행성의 성장점에서 위기를 감지하면 작동하는 방어 기제로 인해 두 클론은 그 행성의 자연의 일부가 된다. 이 결말은 해석의 여지를 풍부하게 남긴다.

우선 위 장면은 돌봄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자연화’해온 상상력을 비판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 끝에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전가하는 일종의 ‘식민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상호 돌봄의 윤리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고민이 아니라 돌봄 노동자의 ‘폐기’라는 더 강력한 도구화의 상상력을 통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곧 자연을 착취해 온 근대적 사고방식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을 이 소설은 끊임없이 위기에 대응해온 자연과 돌봄 전가의 구조 속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결말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²⁵

3 고장 날 수밖에 없는 로봇: 간병의 익숙한 미래

간병이나 노후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양육에 대한 이야기들과 비슷한 양상

²⁴ 박문영, 「무주지」, 천선란 외 4인, 『우리는 이 별을 떠나기로 했어』, 허블, 2021, 144-145쪽.

²⁵ 돌봄의 가족 부담, 그리고 그것의 전가는 돌봄 혐오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이주민, 그것도 이주 여성들이 돌봄 노동을 담당하게 되는 저임금 외주화의 문제로 이어진다.

을 띤다. 같은 종류의 서사적 사고 실험을 통해 작가들은 돌봄 노동 자체의 특성 때문에 기계에 의한 대체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돌봄을 사회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 하는 외주화의 상상력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더라도 돌봄 부정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돌봄을 가치 절하로부터 구해냄으로써 돌봄의 담론과 정치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구병모의 「니니코라치우폰타」는 양로 시설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는 딸의 이야기다. 크리처 제작자인 딸이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어머니가 ‘니니코라치우폰타’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것으로 추정되는 존재의 모형을 손수 만들어 어머니를 방문한다. 이 소설은 다음과 같이 지극히 현실적으로 근미래의 돌봄을 상상한다. 그것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세계의 도래다. 여기서도 물론 기계화에 의한 손쉬운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유나진 할머니 보호자분?

전화 너머에서 이국의 억양이 뻗어 우리말로 입을 여는 사무장은 그 자신도 이유나진 할머니보다 크게 젊지 않을 거였다. 요즘은 어디서나 흔한 광경이긴 하다. 팔구십대노인들이 삶에서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단체 생활을, 조금이라도 몸 사정이 나은 일흔 남짓한 이들이 씻기고 먹고 돌본다. 국민 중위연령 61세. 정년은 69세지만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업장 곳곳에서 그 기준이 무시된 지 오래,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면 누구나 일한다. 그것이 불문율이다. (...) 국가 위탁 요양원에는 AI 요양보호사들을 일부 들여놓았지만 이들은 주로 종이접기나 색칠과 음악 등 교육 활동 프로그램에 투입되는데, 그것이 일단 인간이나 동물 형태가 아니면 일부 노인들이 낯설어하기도하거니와, 보호사의 필수 노동이란 수시로 물과 오물에 직접 닿는 일이다 보니 역시 완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하물며 규모가 적은 사설 요양원은.²⁶

26 구병모, 「니니코라치우폰타」, 『자음과모음』 제53호, 2022 여름, 224쪽.

고령화로 인해 국가 요양 보험만으로 돌봄 비용의 감당이 힘들어지자 희망자에 할해서라도 안락사 허용을 요청하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시위가 벌어진다. “요양 기관의 재정난으로 인한 안락사 허용 요청(시위, 인용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장면들을, 나 어릴 적 몇몇 디스토피아 SF를 보면서 막연히 짐작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여겨도 될까?”²⁷ 정부에서 먼저 나서 안락사를 시행할 줄 알았다고 말하는 1인칭 서술자의 목소리는 시니컬하게 울린다.

그러나 디스토피아의 상상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처럼, 유토피아 역시 도래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니니코라치우폰타’를 보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사무장의 개인적인 마음 씀씀이 덕분이다. 수많은 SF 영화들을 추억으로 간직한 어머니는 그 영화들을 담은 옛날식 외장하드의 반입을 겨우 허락받아 그것을 보며 여생을 보냈으며, 그 상상의 혼합물이 바로 ‘니니코라치우폰타’였던 것이다. 정작 그 SF가 상상하던 미래는 실현되지 않은 채, 외장하드 속 과거의 SF 영화들과 사무장의 전언을 듣고 딸이 만든 수제작 크리치만이 위안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시대착오의 상상력은 다른 SF 서사들에서처럼 돌봄의 문제가 기술로 다 해결될 수 없으며 계속해서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돌봄의 ‘익숙한 미래’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김혜진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에서 로봇 ‘TRS’는 자신이 돌보는 노인과 그 보호자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 10년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노인과 긴 돌봄에 지쳐가는 아들을 둘 다 살릴 방법이 없다는 데서 이러한 딜레마가 온다. 이 소설은 다음의 간병 자살의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할머니는 긴 세월 남편을 돌보느라 완전히 지쳐버렸고 빛을 내서 간병 로봇을 들였다. 간병인을 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싸다고 해서 정부 보조금을 보태 로봇을 들였지만 점점 불어나는 병원비와 로봇 사용료가 할머니의 목을 조여 왔다.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듯 돈이 떨어져가는 게 보였고 이대로라면 로봇을 반납하고 요양병원을 나가야 했다. (...) 로봇을 들인 이후로는 남편이 병원을 나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일은 막

27 위의 책, 227쪽.

을 수 있었지만 남편을 꼭 감옥에 가두고 로봇이라는 간수를 세워둔것만
같아 할머니는 죄책감을 느꼈다. 같이 산책을 하는 것도 어쩌다 한 번이
였다.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 다리를 절었고, 병원에서는 빨리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돈 때문에 수술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²⁸

간병 로봇이 돌봄 노동을 기능적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적이고 부
분적일 수밖에 없음을 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거기에 돌봄이 하나의 기능
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점에 대한 성찰이 없는 한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돌봄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영역까지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한, 결국은 보호자도 돌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돌봄은 신체적 노동만으로 대체
될 수 없으며, 돌봄의 주체가 돌봄 대상자의 시간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때 돌봄의 주체는 피로나 고립, 소외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이들 돌봄
제공자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돌봄은 그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돌봄의 문제로 다시 이어지는 사회
적인 문제이며, 뒤집어 말한다면 사회는 서로에 대한 돌봄의 상호 관계로 얽혀 있
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거기서 돌봄을 하나의 기능으로서 따로 떼어
기계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TRS’는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오정연 「남십자자리」는 어린 자신을 키웠던 육아도우미였으나 지금은 노후
를 보내기 위해 양로행성에 입주해 있는 할머니를 신기술 시험에 참여하도록 설
득하기 위해 그녀와 함께 남십자자리 여행을 가는 양로행성 관리자 ‘미아’의 이
야기다. 이 소설은 인간 관리자 없이 AI들만이 입주민들에게 돌봄 노동을 제공하
는 양로행성을 배경으로 한다. 예의 돌봄을 사회로부터 분리해낸다는 사고방식
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리의 세계관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곳의 휴머노이드들, 특
히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구역의 휴머노이드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자주 고장
이 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돌봄 노동의 특성상 인간과 개별적인 상호작

28 김혜진,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 김초엽 외,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수상작품집』, 허블,
2018, 107쪽.

용에 최적화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휴머노이드로 대체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양육에 있어 애착 형성의 딜레마에 해당하는 양로·간병에서의 딜레마가 바로 가족 돌봄의 딜레마일 것이다. 돌봄이 대상이 기억을 유지하는 것을 돕거나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또는 가족을 대신하는 누군가가 돌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누군가가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돌봄 노동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딜레마가, 로봇이라 해도 그 노동을 다른 로봇의 노동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날 오후 미아는 그렇게 27구 전부와 접촉했다. 그들은 주거 유닛, 공원, 그리고 병원 등 다양한 장소와 세팅에서 A구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역할극과 고강도의 간병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 간병인 외에는 만날 사람이 없는데도 거울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인간, 자꾸만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하루 열 번씩 끼니를 요구하며 반찬 투정을 하는 인간, 자아를 포함해 모든 것을 놓아 버린 인간의 곁을 기억과 자아를 지닌 휴머노이드들이 지켰다. 구역 전용 휴머노이드의 기억을 제조할 때 미아는 치매 간병이라는 작업의 특징을 고려해 자아 민감도를 최대한 낮춰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언제나 제자리인 인간을 구완하는 일의 스트레스는 엄청났고, 자아를 ‘쪼먹는다’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었다. 한편 동일한 인격으로 설정된 치매 간병 휴머노이드를 비교해보았을 때, 휴머노이드가 한 사람을 오래 돌볼수록 인간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모두의 노화, 치매 진행 방식은 저마다 달라서 휴머노이드와 인간이 호흡을 맞추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상적으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쌓이는데도, 상호 작용 레벨을 낮추거나 기억을 포맷할 수도 없었다.²⁹

결국 이러한 기능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라 양로·간병 관리자들은 휴머노이드의 일

29 오정연, 「남십자자리」, 천선란 외 4인, 『우리는 이 별을 떠나기로 했어』, 허블, 2021, 179-180쪽.

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노인들의 기분이나 기억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이르게 된다. 이렇게 돌봄 노동에 대한 기능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노동이 담지하는 정신적 가치를 소거하는 데 기여해 왔다. 돌봄의 기계화와 외주화를 통해 돌봄 노동의 대체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할머니?”

얼마나 오랫동안 심연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해리는 대답이 없었다. 모든 빛이 자취를 감춘 그곳에서 어둠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앉아 있던 걸까. 울고 싶은 마음으로 미아가 암흑을 향해 말했다.

“할머니, 나 무서워.”

그때였다. 미아가 이마에 닿은 해리의 주름진 손바닥을 느낀 것은. 그 손과 팔과 어깨와 목을 거쳐 드디어 미아의 손이 해리의 뺨에 닿았다. 분명히 아무것도 보일 리가 없는데 미아는 자신의 손이 움직여서 할머니의 얼굴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느꼈다.

“뒤통이 무서워. 여기 할머니가 있는데.”

그 순간 해리의 손끝에서 미아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품처럼 전염된 그 미소가 이번엔 미아의 손으로 전달됐다. 잠시 손을 놓친 사이 불안해진 미아 앞에 해리가 나타났을 때처럼, 미아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해리의 등을 토닥이며 조심조심 자장가를 불러주었을 때처럼, 둘은 함께 소리 없이 웃었다.³⁰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에 응할 사람을 구하러 온 ‘미아’는 책임자인 할머니에게 실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그들은 여행 도중에 달의 뒷면 구간을 통과하게 된다. 이때 그녀는 돌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던 할머니가 돌봄의 주체로서 자신을 돌보았던 과거로 되돌아간다. 이 장면은 돌봄의 주체와

30 위의 책, 200-201쪽.

대상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체들이 저마다 취약성을 갖는 존재로서 상호 돌봄의 연쇄 속에 있음을 드러낸다.³¹ 돌봄의 주체를 도구화하거나 돌봄을 받는 사람을 대상화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이러한 상호적인 돌봄 관계를 사유하지 못하며, 이러한 근대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함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망각에 대한 저항

“그래봤자, 대면하고 싶지 않은 예정된 미래를 멀리멀리 보내버리겠다는 거잖아. 대단하지 않나? 인간이 인간이지 않은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을 지속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우주적 규모의 실험. 저건 대처가 아닌 방관이 지.”³² 「남십자자리」의 한 구절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소설들은 돌봄의 문제를 방관하려는 욕망에 대한 서사적인 대응이기도 하다. 돌봄 노동의 예견된 미래를 방관하거나 기술에 의한 해결이라는 손쉬운 전망을 앞세워 은폐하고 싶은 모두의 무의식을 직시하도록 하려는 작가 의식의 산물인 것이다. 이 소설들을 쓴 여성 작가들은 돌봄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사유를 전개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고민을 촉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발전한 미래에도 돌봄의 현실만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시대착오의 상상력을 통해 돌봄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 작은 균열을 내는 서사적 전략을 보여준다.

돌봄에 대한 고민이 가닿을 수 있는 지향점은 결국 사회적이고 시민적인 돌봄이다.³³ 이는 가족의 돌봄을 다른 노동력에 의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공존에 대한 사회와 시민의 성찰과 고민, 누가 돌봄을 받고 누구를 위해 돌봄을

31 앞서 소개한 키티이의 상호의존성 개념이나 “돌봄의 과정 자체가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기에 돌봄을 받는 역량도 중요하다는 통찰을 떠올릴 수 있다. 이지은, 「치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영옥·메이·이지은·전희경,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 봄날의책, 2020, 233쪽.

32 오정연, 앞의 글, 182-183쪽.

33 전희경,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 받기」, 김영옥·메이·이지은·전희경,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 봄날의책, 2020, 73쪽.

하는지부터 다시 묻는 공동체의 돌봄에 대한 질문과 사유를 의미한다. 가족의 돌봄을 기계로 대체한다거나 가족 이외의 누군가가 전담한다는 식의 상상력에 의해 표면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이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돌봄의 기계화와 외주화의 예견된 실패를 보여주고 확장된 시간성 속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사유되지 못하는 지금의 돌봄의 현실을 조망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동시대 돌봄 SF 서사의 효용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구병모, 「니니코라치우폰타」, 『자음과모음』 제53호, 2022년 여름, 223-253쪽.
김초엽 외,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수상작품집』, 허블, 2018, 103-135쪽.
김하울 외 6인, 『우리가 먼저 가볼게요』, 에디토리얼, 2019, 203-245쪽.
오정연, 『단어가 내려온다』, 허블, 2021, 113-157쪽.
_____, 「도메스틱 헬퍼」, 『웹진 비유』, 2021년 8월호.
임소연,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민음사, 2022.
이신주 외 4인, 『제2회 문윤성 SF문학상 중단편 수상작품집』, 아작, 2022, 95-136쪽.
천선란 외 4인, 『우리는 이 별을 떠나기로 했어』, 허블, 2021, 113-208쪽.
엘리자베스 문, 강선재 역, 『잔류 인구』, 푸른숲, 2021.
테드 창, 김상훈 역, 『숨』, 엘리, 2019, 249-265쪽.

단행본

- 김영옥·메이·이지은·전희경,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 봄날의책, 2020.
정진주 외 9인,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하여』, 한울, 2012.
조한진희 외 10인, 『돌봄이 돌보는 세계』, 동아시아, 2022. 낸시 폴브레, 윤자영 역, 『보이지 않는 가슴』, 2001.

더 케어 컬렉티브, 정소영 역,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니케북스, 2021.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어슐러 K. 르 퀴, 최용준 역, 『어둠의 왼손』, 시공사, 2014.
 에바 페터 키티이, 김희강·나성원 역,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6.
 이반 일리치, 노승역 역, 『그림자 노동』, 사월의책, 2015.
 조애나 리스, 나현영 역,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포도밭,
 2020.

논문

강은교·김은주,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듀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 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6-62쪽.
 김미라·배은경, 「가족과 젠더를 넘어 돌봄의 관계를 상상하기-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491-531쪽.
 김양숙, 「팬데믹 이후 사회에 대한 (여성)문학의 응답: 젠더, 노동, 네트워크」, 『비교한국학』 제29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1, 15-36쪽.
 서승희, 「포스트휴먼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한국 여성 사이언스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7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30-153쪽.
 이지용, 「한국 SF의 장르적 개별성과 현대적 주제의식」, 『한국연구』 제8호, 한국연구월, 2021, 37-68쪽.
 인아영, 「젠더로 SF하기」, 『자음과모음』 제43호, 2019년 겨울, 46-58쪽.

Abstract

The Familiar Future of Care as Represented in Feminism Science Fiction Stories

Ahn Seohyun

Around the time of the feminist reboot in 2015, several science fiction narratives that offered visions of the future of care work were published. This occurred in the context of increased awareness in the field of literature—which was experiencing a boom of feminist sci-fi writing—regarding the crisis of caring in response to the pandemic. This is also related to artists’ efforts to construct a new discourse, language, and knowledge of care. These stories reject the easy solutions to the problem of care that are dependent on technology; instead, these stories employ a narrative strategy that fully visualizes the problem of care through the imagination of anachronism, according to which the familiar present, which remains unresolved, arrives as the future. In addition, these stories reveal that the problem of caring cannot be easily solved by replacing care work with technology. They also recognize that certain perceptions of caring must change and that the injustice of care work will continue unless there is a reflective intervention. These works present a paradoxical alternative that uses pessimistic imagination and pessimism itself as a source of alternatives. Most importantly, these stories provide fake catharsis through powerful technological solutions, suggesting that the promise of “caring robots” or “caring colonies,” which actually contribute to obscuring the difficult problems of caring, are not an alternative or solution. In this respect, these stories can also be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ci-fi works. These texts show that the mechanization and outsourcing of care cannot solve the problem of care, and they reject the functionalism and separatism that are often involved in this vision of the future. They clarify that care is not a function that can be replaced but rather is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Since it is a relationship, it is a speculative allegory to say that it is a problem that must be solved integrally within the community. The visions of these writers reject the existing sci-fi imagination that depicts a future that is conquered by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y also try to parody the universal male subject magnified by science and technology. They are also in line with alternative and critical thinking about traditional Sci-fi works.

Key words: Care, care labor, science fiction, feminist science fiction, anachronism

본 논문은 2022년 11월 24일에 접수되어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